

새로운 圖協像의 정립을 위하여

우리 圖協은 곧 45차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곧 건국후 재건된 도협이 45세가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不惑之年을 넘어서 장년의 나이이며 성장과 성숙의 세월을 우리 협회가 가졌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우리 도서관계는 물론 도협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로부터 자주 충격적인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도협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란 힐책성 물음이 그것이다. 이 의문에 대하여 부연하여 설명할 필요는 없을 줄 알지만 그 속엔 도협의 존재이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담겨 있는 실로 신랄함이 있다.

물론 급변해 온 우리 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협회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과 생존을 위한 전략을 짜고 도서관의 발전과 도서관인의 성장을 위한 실천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난 3월에 국회를 통과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의 제정 등이 그 한 예일 수 있다. 이 법의 제정과정은 그야말로 도협 생존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았던 순간의 연속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출판계의 일방적인 의사대로 법이 추진되고 있는 소용돌이를 도서관계는 원조없이 외롭고도 가냘픈 맞섬으로 근근히 버티면서 대응해 나갈 수 밖에 없었다. 그나마 문헌정보학계의 지원을 얻어 오늘 우리가 비교적 도서관의 중요성과 그 사회문화적 기능을 인정받는 선에서 출판계의 독주를 적절히 둔화시키면서 화합적 차원에서 법제정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법은 이제 겨우 무한경쟁의 국제화를 장기적으로 지원할 국민독서진흥과 정보적 기능을 발휘할 터전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책의 해를 맞아 화려하게 전면에 나서서 93년을 주도했던 출판계의 그늘에서 도서관계는 숨 한번 제대로 쉬지 못하면서 도서관이 갖는 기능과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선진외국에서 이미 검증된 이론을 갖고 있는 명명백백한 사실도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정부 여당이 출판계 중심 법제정의 의도대로 끌려다닐 수 밖에 없었던 일을 도협과 모든 도서관인들은 깊이 반성하는 바가 있어야 마땅하다.

도협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떻게 당면한 여러 과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협 지도부는 냉철한 자아비판과 혁신이 뒤따라야만 한다. 도협의 발전과 도서관문화의 창달, 그리고 전문사서직의 위상 확립과 향상을 위한 원대한 비전과 실천 전략을 지니지 못한 지도부를 회원은 고사하고 누가 인정하겠는가. 무사안일과 무정견한 모습을 면치 못하고 있는 도협당국은 각고의 자아비판을 통하여 거듭나야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협 지도부를 질타하는 것으로 회원의 책무를 다한 것이며, 도협의 무기력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인가. 문헌정보학의 이론과 실체를 통한 위상의 구현을 위해 도협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그 구성원인 도서관인들의 작금의 자세와 전문직에 대한 사명감이 수준이상이라고 평가받을 회원이 과연 몇 %나 될 것인가? 자타를 가릴 것없이 웃길을 여미고 자성해야 할 대목이다. 도서관인들이 너무 무기력하며 비전없이 허송세월하고 있다는 지적 또한 귀가 따갑도록 도서관 주변에서 듣고 있다. 도협의 지도부가 그 주어진 역할을 성공적으로 해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의 반은 회원자신

들에게도 있다. 왜 도서관인들은 자기들의 소중한 단체인 도협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지 않는 것인가. 왜 도협에 이렇게 하라, 혹은 저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가. 왜 우리 협회가 그간 위 기상황에 몰려있을 때 모이자고 회원 스스로 재촉하기는 커녕 중대사안이라고 모여 의논하자고 했을 때 성원미달 사태를 빚게 할 수 밖에 없었는가.

도협과 전문사서직은 과연 이 시대에서 죽었는가?

문명의 큰 흐름이 정보사회로 치닫고 있는 현실에서 이 시대를 지도할 주도적인 정보전문가로서, 전문직 단체로서 전문사서들과 도협은 대처할 준비와 방략이 과연 있었는가. 민족통일과 민주사회의 정착에 도협은 과연 시민의 평생교육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 그리고 문화를 누릴 수 있게 돕고 지도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구상들을 갖고 있는가?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수많은 젊은 이들이 도협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하여 그들을 소중한 동지로 맞아 협회의 힘을 키우고, 도협이란 단체가 매력있는 단체임을 그들 스스로가 깨닫고 참여토록 할 길은 아주 없는 것인가. 이를 위해서 협회는 실천적 대안을 마련하고 모든 회원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흩어져 있는 보배들을 한 곳에 모으고 우리 협회의 이상을 향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도협이 다시 태어나기 위하여 사회문화적 장치로서의 도서관이란 명칭, 그리고 사서란 정보전문가로서의 명칭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이를 개혁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기울일 것을 차제에 주창한다. 국가공무원법에서 사서직의 위치가 확보되지 않고 절름발이로 어정쩡하게 행정직군의 그늘에 빌붙어 있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속히 수립되어야 한다. 도협이 깃발을 들고 나서고 전회원이 하나로 합심하여 이를 사서직군 혹은 명칭까지 바꾸어 문헌정보직군으로 독립시켜 1급까지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는 한 모든 국공립, 사립도서관이나 도협, 그리고 전문사서직의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필자의 진단이다. 문헌정보전문가로서 이 사회에 기여하고 떳떳이 그 위상을 확립하는 것이 무엇이 나쁘단 말인가? 그 외에 도협과 그 단체를 형성하고 있는 회원들의 맹성이 요구되는 사항들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산적한 문제들에 대한 정책대안과 실천방안을 도협은 어려운 여건하에서라도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들이 나태해지면 독려하고 이끌고 그들이 마침내 능동적으로 협회에 참여하고 애정있는 비판을 할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하여야 비로소 도협의 존재가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임을 다시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다. 지금 도협은 장년의 연륜답게 성장을 위한 거듭남이 절실한 변혁의 때에 처해 있음을 주목하여야 한다.

(한상완/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